2016화순 힐링푸드 페스티벌

10월27일~30일 하니움센터

화순군이 건강한 음식을 테마로 개최하는 '힐링푸드 페스티벌'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급성장하고 있다.

화순군은 현대인의 관심이 높은 '치유, 음식, 건강'을 테마로, 타지역 축제와 차별화한 축제 프로그램을 구성해 축제의 성장세를 돕고 있다.화순군은 특히 소모성 축제에 머무르지 않고, 축제를 기반으로 힐링푸드를 직접 개발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해 새로운 수익형 축제모델을 제시했다는 호평도 얻고 있다.

'힐링푸드 페스티벌(10월 27~30일)'은 또 짧은 축제 이력을 극복하기 위해 화순군의 대표적 가을철 축제인 '2016 도심 속 국화향연(10월 27~11월6일)' 기간 내에 병행·개최하는 방식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타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건강한 맛의 향연 화사한 국화 향연 가을 화순이 부른다

대한민국 대표 건강축제 자리매김…국화축제·적벽투어 등 연계 시너지 효과

2016 화순 힐링푸드 페스티벌이 10월27일부터 30일까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다. 지난해 열린 국화축제 전시장.

●힐링음식 소재로 10만 관광객 유치

힐링음식을 소재로 지난 2013년 5월에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첫 선보인 힐링푸드 페스티벌은 15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지역 개발형 축제로서 전남도·문화체육부 지정축제로의 발전가능성을 보여줬다.

지난해에는 화순대표 가을축제인 도심 속 국화향연과 병행 개최해 11만2000명이 축제장을 찾아 힐링음식과 국화향을 즐기면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기도 했다. 특히 축제개최를 통해 음식판매 1억4300여만원, 농특산물 판매 9500여만원 등 총 2억4000여만원의 매출까지 올리기도 했다.

도심 속 국화향연과 동시 개최에 나선 점은 '신의 한 수'로 꼽힌다. 가을 대표 국화와 힐링푸드가 결합한 이후 축제 참여 관광객들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힐링 먹을거리를, 남산공원에서는 국화 등 볼거리를 중심으로 차별화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축제 구성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행정력 낭비요인을 없애는 효과도 냈다.

여기에 건강과 음식을 주제로 화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이용한 힐링요리를 개발해 판매한 것도 성공요인으로 꼽힌다.

군은 힐링푸드 페스티벌의 성공에 힘입어 축제기간 화순전통시장 야시장과 낮장을 개장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끌고 있으며, 화순적벽 버스투어를 국화향연장과 연계해 적벽 관람객을 축제장으로 불러들이는 등 화순의 문화·관광 홍보효과도 극대화하고 있다.

국화축제에 쓸 모종을 심고 있다.

●화순 명품 음식 개발…올해 축제서 첫 선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화순 힐링푸드 페스티벌은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일원에서 '건강한 음식! 맛의 향연!' 슬로건으로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룡) 주관으로 열린다.

군은 이번 축제를 통해 치유, 음식, 건강이라는 테마에 적합한 차별화된 대표 축제로 육성하고,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와 관광자원을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2016 화순 힐링푸드 페스티벌'에서 선보일 화순의 대표음식으로 명품음식 7종과 힐링간식 15종을 선정하고,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18만주 도심 속 국화향연도 볼거리

힐링푸드 페스티벌 기간에는 만개한 국화향연도 덤으로 만끽할 수 있다. 화순군이 지난해부터 도심 속 국화향연 축제 시기와 병행해 개최하고 있어서다.

올해 도심 속 국화향연은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11일간 남산공원에서 열리며, 화순군은 남산공원 국화동산 조성을 위해 지난 6월부터 3ha의 면적에 화단용 국화 10만주와 스프레이형 국화 6만주, 숙근초 2만주 등 총 18만주의 꽃을 식재했다.

화순군은 특히 가우라, 아스타 등 숙근성 작물을 산책로 주변에 심어 남산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사계절 꽃동산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화순군은 앞으로 공룡, 적벽, 입석대, 파프리카 등 화순의 문화관광자원과 대표 농산물을 형상화한 35종 550점의 조형물을 관람동선을 따라 배치하고, 분재국화, 대국, 현애작 등 일반인이 재배하기 어려운 다양한 작품국화를 관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산공원을 녹색쉼터로 새 단장하기 위해 6억 7000여만원을 들여 남산 공원 내 주요 진입로 정비를 비롯한 동선 및 배수로 정비, 조경 수목 식재, 파고라·휴게의자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구충곤 군수는 "올해 힐링푸드 페스티벌은 '건강'에 방점을 두고 명품 음식 개발과 판매, 상품화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도심 속 국화향연과 화순고인돌전통시장, 화순적벽 투어 등 지역관광자원과 묶어 축제의 재미와 만족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배영재기자 byj@kwangju.co.kr

구충곤 화순군수가 화순 대표음식 개발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다양한 음식을 시식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에서만 맛볼 수 있는 힐링푸드 명품음식 7종·힐링간식 15종 선정

'2016 화순 힐링푸드 페스티벌'에서 선보일 화순 대표음식이 최종 선정됐다.

화순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 대표 음식 개발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명품음식 7종과 힐링간식 15종을 등 총 22종을 선정했다. 화순군 대표음식 개발용역은 농림부지정 한식특성화대학인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김수인 교수가 수행했으며, 지난 7월 21일 개최한 중간보고회 때 선보인 메뉴의 선호도 조사와 지역 특수성을 가미해 최종 결과물을 내놨다.

명품음식은 화순지역 농특산물 재료로 만든 버섯 매운 닭갈비를 비롯한 산양삼 두부전골, 한약초 소금, 버섯 스테이크파이, 승검초 떡갈비버거, 힐링 돌솥밥 등 7종이며, 힐링간식은 순두부 도넛, 아스파라거스 두부닭강정, 파프리카 브리또, 옥수수 팥 찐빵, 도라지 정과, 아스파라거스 두부김밥, 뽕잎 인절미토스트, 파프리카 볶음면, 기정떡 샌드위치 등 15종이다.

화순군은 대표음식으로 선정된 음식의 전수교육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해 전수교육을 한 뒤 5개 업체를 선정해 '2016 힐링푸드 페스티벌'에서 음식판매 부스를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표음식으로 개발된 음식의 주제관 전시와 스토리텔링이 담긴 레시피 책자 발간 배부 등 판매 부스와 주제관을 연계함으로써 상품화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화순=배영재기자 byj@kwangju.co.kr